

제61회 식목일 행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박수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산림청장 보고가 끝났을 때,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보고를 잘하셔서 박수를 치기도 했지만 그 박수 속에는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의 성과에 대한 박수, 산림 정책성과에 대한 박수, 오늘 이 자리에 나무심으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한 박수가 함께 담겼습니다.

숲을 잘 가꾼 나라가 잘 사는 나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들을 다닙니다. 비행기에서는 내려다보면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내려다보면 숲이 푸르고 가난한 나라는 숲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숲이 푸른 나라에 속합니다. 그 동안 산림정책을 잘 해왔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애써서 숲을 잘 가꾼 결과로서 우리도 좋은 숲을 가지게 됐습니다. 숲을 보며 이제는 잘사는 나라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니 참 기쁩니다.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리자면,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에서 차를 타고 그 나라의 수도로 가다보면 마을과 도시 숲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숲을 보면

서 우리도 마을과 도시의 숲을 이 수준으로 가꾸어 놔야 우리도 수준 있는 선진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직도 만족할 수 없고 할 일 좀 더 남아 있다는 뜻이겠지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리면서 보니까 멀쩡하게 숲이 울창한 곳에 와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니까 어리둥절합니다. 이렇게 나무가 울창한데 무슨 나무를 또 심느냐고 하지만 이제 이것도 수준을 높이는 일이겠지요. 그저 푸른 숲이 아니고 경제성이 있는 숲으로 가꾸어 보자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산림정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경제성이 있는 숲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서 식목을 하는 것입니다.

숲이 가진 공익적 가치

욕심을 좀 더 부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을마다 마을 숲을 좀 잘 가꾸어서 숲이 있는 마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전 국토에 숲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마을이 많으면 도회지에 살고 있는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자연을 맘껏 누리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놀고 즐기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도시 생활에서 숲이 많으면 도시의 문화수준도 높아 보이고 환경도 훨씬 좋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종로구에서 살고 있는데 종로가 서울 중에서는 숲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답고 공기도 훨씬 맑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도시 숲도 앞으로 잘 가꿀 수 있도록 정책을 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도시 숲까지 가꾸는데 아직까지 정책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 도시는 행정관할이고 도시계획에 의해 이

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관할들도 다시 한 번 조정하고 도시에 있는 숲의 공익적인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이 함께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 숲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59조로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GDP가 700조 정도이니 59조면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 통계를 낼 때 항상 경제 성장률과 GDP 통계만 내는데, 앞으로는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도 함께 평가하여서 삶의 질이나 국민에게 기여하는 복지를 전부 지수로 계산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가 숲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인데, 전체적으로 59조라면 무척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 안에 있거나 도시 가깝게 있는 숲 일수록 공익적 기능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익적인 기능을 가치로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숲을 가꾼 사람에게 적절한 혜택을 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개발했으면 합니다.

산림청장과 상의하고 연구해서 예를 들면, 같은 도시의 땅이라도 일부러 숲을 조성해서 도시의 환경 같은 공익적 기여를 하고 있을 때는 재산세를 차등으로 부과 하는 등의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 국토가 아주 푸르고 아름답고 그 안에서 우리가 쾌적하고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산림 정책을 함께 펼쳐 나갑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무 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화마을을 둘러보고)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무 심는 날이지만 굳이 이 마을에 오자고 주문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도시에 다 몰려가고, 돌과 흙을 밟을 수 있는 자연을 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어 너무 답답합니다.

도시는 도시대로 환경이 좋지 않아 숨 막히고, 농촌은 농촌대로 소득이 없어 사람이 떠나고 황폐해집니다. 도시와 농촌을 함께 개발해서 도시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어울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농촌이 자연환경에 있는 향수를 갖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생활형편이 보장되는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자연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 차례 토론회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이상적으로 성공한 마을이 있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배워서 정책을 세워보자는 생각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 생각하기는 노인마을도 생각하고 은퇴자 마을도 생각하고 전원주택도 생각하고는 했지만, 전원주택이라는 것이 도시사람들의 단절되고 고립된 삶을 농촌지역에 숲속에 갖다 댄을 뿐이지 사람은 다 따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마을이 형성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되는 방식의 이주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모색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FTA라든지 하는 대비는 십 년 지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경을 발전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오래가도록 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제일 관심과 애정이 큰 것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보고 배우러 왔습니다.